

8. 안보딜레마의 극복(또는 완화) 방안

1) 현실주의적 방안

- 방어적 충분성(defensive sufficiency) : 방어적 무기, 방어적 군사전략, 세력균형보다 적은 수준의 최소억제력 등 추구
- 상호억제(mutual deterrence) : 안보딜레마에 의한 군비경쟁을 상호억제의 역내에 머물도록 관리
- 균형(balancing) : 세력균형 또는 위협균형을 달성하여 전쟁 발발을 방지
 - 외부위협에 대한 내적 균형(군사력 건설)을 외적 균형(동맹)으로 보완하여 안보딜레마 하 군비경쟁을 완화
- 패권(hegemony) : 안보딜레마 상황 하에서 군비경쟁 등을 통해 힘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해 상대 국가의 군비경쟁 포기 또는 자국에의 편승 유도

2) 자유주의적 방안

- 안보공동체(security community) : 기능적, 신기능적 국제통합 등을 통한 안보공동체의 진전으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
- 안보 외부효과(security externalities) : 경제적 상호의존 증진 통한 긍정적 안보 외부효과 달성
- 민주평화(democratic peace) : 민주주의 확산 통해 전쟁회피적 규범이나 제도가 증진되어 상호 적대감 완화
- 공동안보(common security) :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통해 상호 간의 안보위협 완화
- 신자유주의적 국제협력의 강화 : 상호주의 전략 등에 의해 죄수의 딜레마 게임 구조를 반복적인 되받아치기(Tit-for-Tat) 게임 구조로 변경, 또는 국제기구, 국제제도, 글로벌 거버넌스 등에 기초한 국제안보 레짐을 통해 다자적 안보대화 및 협력의 추구

3) 구성주의적 방안

- 오인식(misperception)의 제거 : 안보딜레마는 상대 국가의 방어적 의도를 공격적 의도로 잘못 인식하는 오인식에서 비롯되는 바,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보수집, 올바른 정보처리 및 평가 활동이 필요
- 무정부상태를 보는 문화(culture)의 변화 : 무정부상태에서 국가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문화(홉스적 문화)를 변화시켜, 공존공영(로크적 문화), 항구적 평화(칸트적 문화)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화로 변화시키면, 국가의 생존,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
- 상호 간 정체성(identity)의 긍정적 변화 : 안보딜레마 상황 속에 놓인 국가들이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던 상황에서, 경쟁적 내지 우호적 존재로 인식하도록 상호 정체성 변화가 있게 되면, 서로의 적대성에서 비롯된 안보딜레마 완화

9. 안보딜레마에 대한 평가

1) 의의

- 모든 군사력이 공격-방어 위한 양면적 효용성 있음을 인정
- 어떤 국가가 방어적(현상유지)인지 공격적(현상타파)인지에 대한 의도의 불확실성을 강조
- 국가 간의 협력보다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적 시각
- 개별 국가의 의도와 행동이 아닌 국제체제의 중요성 인식을 강조
- 안보딜레마의 극복(또는 완화) 방안을 국제적 안정 증진 모색

2) 비판

- 안보딜레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 : 각국은 생존을 위해 힘의 극대화, 무한경쟁 하는 공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방어적 국가 간의 안보딜레마는 성립 자체가 불가(공격적 현실주의 시각)
- 국가 간의 안보경쟁은 최소 한 국가는 공격적일 때 발생 : 안보경쟁이 방어적 국가들 사이에서 의도 불확실성에 의한 것이 아니며, 따라서 공격-방어 구분 가능성은 무의미(신고전적 현실주의 시각)
- 공격우위인지 방어우위인지 측정 가능 : 이 측정이 가능하다면 안보딜레마는 손쉽게 극복 가능한 현상에 불과
- 공격우위에 의한 안보딜레마 강화 논리의 한계 : 공격우위 시 단기전에 의한 전쟁승리의 높은 가능성으로 안보딜레마 강화시킨다고 보았으나, 경험적으로 공격우위 시 단기전과 높은 전쟁승리 가능성이 타당하지 않아 공격-방어 균형 이론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존재